

정화의 작은이들



재속 프란치스코 토론토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 Secular Franciscan Order St. John Vianney Fraternity of Toronto

형제회: 성 김대건 성당 849 Don Mill Rd, Toronto, ON M3C 1W1
연락처: 22 Royal Palm Dr, Thornhill, ON L4J 5R3
Tel: 905-889-6518 E-Mail: sunlee333@hotmail.com
형제회 일시;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00 시

제 38 호

9 월 형제회 소식

2008 년 9 월 27 일

오늘 월례회 순서

- 오전 10 시 - '사랑의 순교자 콜베' 감상
- 오전 11 시 - 미사
- 오전 11 시 45 분 - 월례회
- 오후 1 시 - 친교

형제회 소식

- 다음 달 월례회는 10 월 25 일(토) 한맘 성당에서 오전 10 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 사부님 추도식이 10/3 (금) 오후 3 시 30 분부터 St. Bonaventure Church (1300 Leslie St.)에서 거행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 달 10/10~10/12 까지 실시되는 연례피정 중에 입회식(13 명)과 종신서약식(7 명)이 거행됩니다. 10/12 (일)오후 3 시부터 시작되는 서약식에 가족, 친지, 회원 여러분을 초청하오니 오셔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주소록을 새로 작성, 배부예정이니 주소나 전화 번호가 변경된 회원은 서기에게 변경 신청 바랍니다.

기도 부탁 드립니다

- 최명순 (루미나) 자매님의 남편, 최흥국 (요셉)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위하여...
- 9/21, 한국 성지 순례를 떠난 최 신부님, 리따 수녀님과 회원을 포함한 순례단의 무사한 여행을 위하여...
- 병환 중이나 역경에 처한 회원들을 위하여...

사부님 영성의 향기 (6)

“참다운 단순성”

봉사자 이선영 ofs

성인은 은총의 딸이요, 슬기의 자매이며, 정의의 어머니인 거룩한 단순성을 몸에 지니려고 각별히 애를 썼고, 다른 형제들 안에서 이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는 모든 종류의 단순성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느님만으로 만족하고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단순성을 좋아하였다. 이러한 단순성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자랑하고 악행을 할 줄 모르며, 악한 말을 할 줄을 모른다. 이러한 단순성은 자신을 반성하기 때문에 아무도 단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권리를 탐하지 않으며, 더 나은 사람에게 그것을 양보한다. (2 쉐라노 189)

“옛날의 그 집/ 비자루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죽어 자빠진 그 집/ 십오 년을 살았다/ 빈 창고같이 웅덩이처럼 큰 집에 / 밤이 오면 소쩍새와 속곡새가 울었고/ 연못의 맹꽁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 봄/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 (중략)
모진 세월 가고/아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출가분하다.” 이 시는 지난 5 월 5 일 타계한 광복 이후 한국 문학이 거둔 최대의 수확으로 일컬어지는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이 숨을 거두기 한 달 전 발표한 유작입니다.

30 여 년 전만하더라도 서울의 어느 호텔에서 친척, 친지들을 초대하여 부모님의 환갑 잔치를 크게 벌였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 환갑은 노인층에도 끼지 못하고 심지어 인생은 칠십부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같으면 환갑이 되면서 육체도 서서히 무너지며 상대적으로 생을 정리하는 시기로 접어들면서 벌려놓았던 일들도 추스르며 자연히 육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옮겨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요즘은 의학, 예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부터 건강이 하느님의 위치를 대신하며 노아의 홍수 때처럼 멸망(죽음)을 하루 앞 두고도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유흥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프란치스칸들은 이미 사부님께서 좋아하셨던 ‘거룩한 단순성’을 본 받아 오직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며 영생을 준비하는 노년을 맞이하니 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2008/09/01)

회계 보고

2008년 8월 31일 현재

내역	전월 이월금	월 수입금	월 지출금	현 잔고
회비	\$6,726.19	\$544.30	\$935.18	\$6,335.31
선교 후원금	\$4,810.43	\$245.00	0	\$5,055.43
도서 구입	\$618.83	\$210.00	0	\$828.83

길 미자 베로니카님의 영전에

김 여정 미카엘라 ofs

자캐오처럼 -새가 되어 난다-

(길 미자 베로니카 작시)

아침 해는 온타리오 호수 수평에서 떠오네/
 금빛 휘황한 나래를 펴고 오네/
 어디로 갈까 오늘은/
 오늘은 어디로 갈까/
 한마리 새가 되어 난다/
 주님이 오시는 길목에 서서/
 자캐오처럼 나뭇가지에 앉아/
 고운 소리로 울까/

딸꾹질이 될까야/
 오늘 내집에 주의 구원이 당도했는지/
 누가 아는가/
 날아서 날아서 새가 나는 길목에/
 저 님이 벌써 당도 하셨을까야/
 그리고 나는 비로서 내 울음의 소리를/
 그 의미를 깨달으리라/
 내 노래는 사랑의 노래임을/
 내 노래는 피조물의 노래이나/
 영원한 사랑의 노래임을...

평화신문 독자 난에 실린 이 시를 발췌하여 몇 년 동안 간직하며 일면식도 없는 길 미자 베로니카 자매님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그려보며 기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라버니되시는 길 우배 클레멘스 형제님으로부터 기도 부탁과 함께 건강하지 못한 동생을 염려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뿐이지만 간간히 신문 지상에 발표되는 영성 시를 읽으며 간결한 시어들로 표현된 자매님의 영성이 함축된 시어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해바라기하며 사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휘황 찬란하게 아침 해가 떠오르면 오늘은 어디로 갈까, 임이 오실 길목을 찾아 서성이며 나뭇가지에 앉아 부르던 노래는 피멍울 섞인 울음으로 딸꾹질이 되고... 아무도 알아 주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그 노래를 단 한 분 그 임께서 들으시고 오늘 그대의 집에 주의 구원이 당도하여 천상의 날개 못 받아 입고 날아서 날아서 그 임이 먼저 당도하시어 기다리고 계시는 하늘 궁전에서 베로니카님은 목청껏 피조물의 노래, 영원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겠지요. 카나리아보다 더 고운 소리로 갈멜 수도원에서 사셨던 십 년보다 더 값진 긴 세월을 고스란히 갈멜의 영성을 살다 가신 베로니카님은 영원한 갈멜의 사람이었습니다.

길 미자 베로니카님,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